

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.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(히11:6),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다(롬14:23). 이것이 무슨 뜻일까?
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. 구원을 주시는 그 분을 믿음으로 받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다(엡2:8-9).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, 종교 개혁의 핵심이다(롬1:17).
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다(롬4:2, 고전1:29)
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응답과 축복의 증거들도 믿음의 열매이다.
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축복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(마8:13, 눅7:9, 막5:34).
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할 때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다(막16:17-18).

1. 문제는 많은 사람들(신자들까지)이 이 믿음을 오해한다.

1)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자기가 가진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한다.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긍정이다.

긍정은 좋은 것이고, 정신 건강에도 좋다.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면 적어도 네가지 문제가 온다.

- ①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난다. 늘 내 기준, 수준, 갈등 속에 살고, 하나님의 깊은 것 체험하기 어렵다.
- ② 그것은 반드시 영적 문제를 만든다.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한 사람들과 교회들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이유다.
- ③ 자기 신념으로는 이미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지 못한다. 그래서 우울증, 자살, 정신 문제들이 계속 된다.

내 안에 자리 잡으면 사단이 계속 역사할 수 밖에 없는 사단의 망대(시스템)가 된다(고후10:4).

2)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, 헌신 봉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한다.

① 본래 무엇을 해도 책임감이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다. 기본을 갖춘 것이고, 좋은 것이다.

② 문제는 그것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닐 때는 심각한 결과가 벌어진다.

사이비에 빠져 재산 다 내놓는 이유도 이것이고, 착하게 살고 죽도록 헌신해놓고 무너지는(마12:43-45)

3) 믿음을 죽고 난 뒤의 영원한 세계(천국)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오해한다.

① 지금 이 세상은 안 중요하다는 것이다(단절). 참 믿음은 세상을 버리는 자가 아니고,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.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본 받지는 않으나 세상을 살릴 만큼 잘 알아야 한다(올바른 세계관, 경제관, 문화관)

② 우리는 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응답을 누리지만 그 응답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.

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했고(눅17:21),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화락이라고 했다(롬14:17)

2.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?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시고, 그 믿음이 세상을 살린다고 했다.

1)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.

인생을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선택하는 분은 성부이시다(엡1:3-4).

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,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(엡1:5-12).

이제 우리 안에 인을 치시고, 모든 것을 보증하시고,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(엡1:13-14).

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, 내 인생의 구원자로,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(영접)

이때부터 그 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(참 선지자), 그 분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받고(참 제사장),

그 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힘들게 한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된 것이다(참 왕).

② 이때부터 내 인생은 그 분이 함께 하고, 함께 가는 여정이 되는 것이다(언약의 여정, 7대 여정)

여정(Journey)은 한번으로 끝날 수 있다. 그 소중한 시간을 그 분과 함께 하는 것이다. 모든 문제와 위기까지도 축복으로 바뀐다(3응답).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많으나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요, 감사할 것 밖에 없다.

2) 이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. 그 속에 나의 정체성이 있고, 내가 누릴 절대 응답이 있다.

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세가지를 믿고, 그것을 기도로 누리면 된다(예배, 정시기도, 무시기도, 24기도).

① “하나님 안에 있는 나”에 대한 언약이다. 이것을 자존감(Self-Esteem)이라고 한다.

내가 누구냐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. 사람들이 보는 나, 세상 기준으로 보는 나, 나 자신이 보는 나가 아니다.

하나님이 구원하시고, 하나님이 보시고, 하나님이 사랑하시고, 하나님이 쓰실 나다(사43:1-4)

② “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”에 대한 언약이다. 이것을 자부심(Self-Pride, Self-Richness)라고 한다.

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그 분의 생명(요5:24), 권세(요1:12), 능력(요14:12)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.

불신자가 절대로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자들이다. 여기서 자부심이 나온다. 다 가진 자이다(고후6:9-11)

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7대 망대이다. 보좌의 주님께서 시공간 초월,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이시는 것이다.

③ “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”에 대한 언약이다. 이것을 자긍심(Self-Significance, Self-Worth)이다.

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을 내게 맡기신 것이다. 그만큼 중요한 인생이다(고후5:20, 뱀전2:9)

내가 공부하고, 결혼해 살고, 일하는 모든 현장을 살릴 미션(천명, 소명, 사명)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.

바쁘게 정신없이 살지 말고, 그것을 위해서 3집중을 해보라는 것이다(이때 대학 수련회의 세가지 미션 가능).

3) 이 그리스도께서 준비해주신 것을 믿는 것이다. 영원한 미래를 위한 준비요, 축복이다.

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미래를 미리 붙잡고, 보고, 누리고, 체험하고, 도전하는 것을 CVDIP라고 한다

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의 결론이 뭘까?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, 그것을 위해 우리 할 일이 세계복음화이다.

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에 끝이 온다고 했다(마24:14). 영원한 심판도 있고, 영원한 상급도 있다고 했다.

그래서 전도자와 그들을 돕는 자들이 중요하고, 그 걸음이 아름답고, 영원히 빛날 것이라 했다(롬10:15, 단12:3).

②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풀고, 거기에 결론을 내라.

나의 모든 응답, 축복, 아픔까지도 증거가 되게 만드는 절대 이유다. 증인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.

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건강, 경제, 후대까지 책임져야 하는 절대 이유다(신34:7, 대상29:28, 고후12:9-10).

③ 이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절대 이정표가 되면 된다(7대 이정표)

내 옆의 다민족 살리고, 제자화시켜라(다민족 하우스). 그들을 치유해 영적써밋으로 만들어야 한다(치유 하우스)

결국 미래를 이끌 전문인 선교사, 목회자 선교사 키워내야 한다(TCK 하우스). 여기서 3작품이 나온다.

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이 사역에 집중해 오고, 교회의 3대 목표가 된 것이다(세가지 딸)

결론-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 많은 유혹과 무거운 짐이 올 수 있다.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기다리라. 넘어졌어도 포기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라. 넘어진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,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라.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.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, 영원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한다.